

보도시점

2025. 9. 11.(목) 17:00

9. 12.(금) 조간

배포

2025. 9. 11.(목) 09:00

송미령 장관, 추석 성수품 공급 대비 주요 과수 생육·출하 현장 점검

-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아산시 소재 배 농가 및 거점 산지유통센터 찾아 햇배 수확·선별·출하 상황 점검 및 현장 관계자 격려
- 배 고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 수확과 분산 수확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11일(목) 오후,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배 생산농가와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햇배 수확·출하 등 생육 상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배 농가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들에게 “지난 장마철 집중 호우, 폭염에 대응하여 철저한 과원 관리와 적기 병해충 방제에 노고가 많으신 농업인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전하고,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열매 성숙 상태를 확인 후 수확시기를 결정하여 장기 저장용 배는 조기 수확하고, 추석 성수품용 배는 적정 시기에 수확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 배 적정 수확 시기(농진청, 추정) : (1차 장기 저장용) 9월 9~10일 전후(±2일)
(2차 본 수확) 9월 19일 전후(±2일)

이어서 방문한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 선별장에서 배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정부가 공급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고 소비자 할인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배는 사과와 함께 연중 저장하여 소비되는 대표 과일인 만큼 추석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현장을 안내한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은 “현재 조생종(원황) 배 출하가 막바지 단계이며, 다음 주부터 중생종(신고) 배가 본격 출하되면 추석 성수기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추석 명절에 성수품을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폭염, 늦은 추석 영향 등으로 사과(홍로) 및 배(원황)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높은 상황이나, 생육이 회복세에 있고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 출하 의향도 높아 사과·배의 추석 성수기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등 농업·농촌 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관계부처 협의 후 9월 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책임자	과 장	신지영 (044-201-2251)
		담당자	사무관	이창형 (044-201-2260)

